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인문학 여행

전남대·조선대·참교육학부모회 시민·청소년들 위한 강좌 '풍성'

봄을 맞아 지역 대학과 시민단체들의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풍성하다.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와 역사문화연구소는 3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함께하는 삶을 위한 인문학(북·동구 희망자센터) ▲신체장애 학생을 위한 인문학(동구 학동 행복재활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역사·문화강좌(북구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청소년을 위한 논리강좌(북구 청소년 수련관) 등 6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강좌의 총괄책임 맡고 있는 정미라(철학과) 교수는 "소의 계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인문학 강좌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일깨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530-3291-3241.

광주대 한구부(관광학부) 교수가 추진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도 4월1일부터 진행된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와 함께하는 이번 강좌는 광주대 인문학 교수진이 6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광주여성장애인연대 회의실 등에서 '여성 장애인의 삶과 꿈을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게 된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자아성찰과 실현을 위한 철학', '사진으로 보는 인간과 문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062-676-2305.

지난 2004년부터 '인문학 콜로키움'을 개최해온 조선대 인문과학대

학은 이번 학기에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 해외학자 초청강연 등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매달 한 차례씩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9일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열린 첫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뇌과학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박사가 '뇌과학과 인문학의 활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 강좌는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장 '하늘과 우리 민족'(5월 14일) ▲장대의 동덕여대 교수가 '끝나지 않는 다윈 혁명'(6월 9일)이다.

해외학자 초청강연도 열린다. 내달 28일에는 초청강연은 일본 사상사를 연구하는 사와이 케이치(일본 게이센여자대학)교수가 '이회계와 아마자키 안사이'를 주제로 강연하며 7월 9일에는 윤대선(고려대)

박사가 '현대 사상이 순례 : 레비나스의 사상과 타자 철학'을 주제로 프랑스의 윤리철학자인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을 소개한다. 문의 062-230-6519.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인문학 북카페 '봄학기 프로그램 '철학교실'도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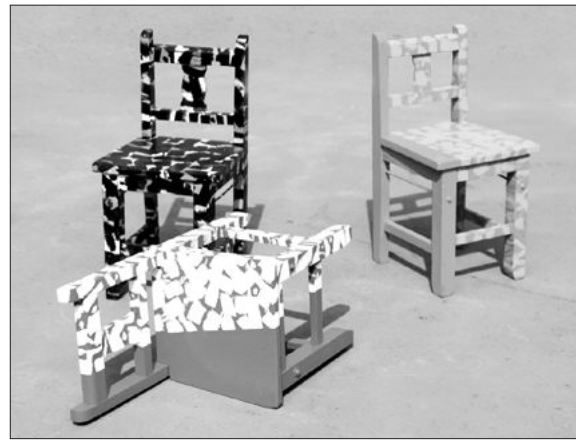
지난14일 개강한 프로그램은 박정민(동신대 강사)씨의 강의로 중고등학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토요일 광주 예술의 거리 원불교광주전남교구 2층에 위치한 '북카페'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청소년, 학부모 및 일반인들이 참석, '아버지의 라디오' 저자 김진주씨를 초청, 저자와의 만남시간도 가졌다. 문의 062-228-6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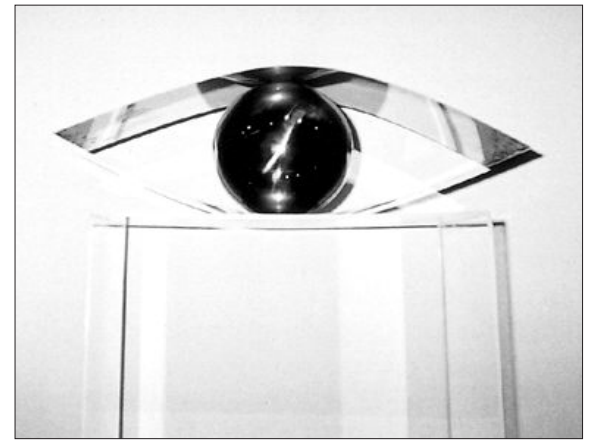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봄을 맞아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지역대학과 시민단체들의 인문학 강좌가 풍성하다. 사진은 지난 19일 조선대에서 열린 '인문학 콜로키움' 강연 모습.



김종일 작 '무제'



다카하시 마사루 작 '여행자'

한·일 현대미술 흐름 한눈에

보성 백민미술관, 'STOP AND START'展

4월1~30일 한국 37명·일본 13명 참여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현대미술 양식과 흐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일현대미술특별기획전시 실행위원회(운영위원장 김종일)가 오는 4월1일~30일까지 보성군립백민미술관에서 'STOP AND START'를 주제로 '한·일 현대미술'전을 개최한다.

백민미술관은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대원사 벚꽃길에 위치해 있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에는 김종일, 김주연, 노정숙, 류현자, 박유자, 박주하, 백일, 우제길, 윤익, 윤해옥, 이규환, 전영화, 정종기, 조주호, 최재창, 한지희 등 37명의 지역 작가가 참여한다.

또 다카하시 마사루, 하기와라 이쿠유, 미키코 우메바라, 야수에 무라마츠, 루이 사사다, 노부하라 오사무, 토시

로 야마구치, 콘도 아키코, 케이코 야마노우치 등 13명의 일본 작가가 출품한다.

일본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된 다카하시 마사루씨는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이는 등 인간의 감성과 삶을 묘사한 일본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이 망라됐다.

또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색의 변화를 선보이고 있는 우제길씨 등 한국 작가들도 다양한 인간의 갈망을 형상화한 신작을 내놨다.

일본 작가들은 아시아문화전당과 대인시장을 찾아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 등을 둘러보고, 지역 작가들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일(전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실행위원장은 "현대 미술은 영상, 설치, 연주 등의 요소들이 결합돼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양국의 작가들이 서로 작품 경향을 교류하고, 이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형진씨 '현대인의 기억 속 단상'

서울 낙원동 갤러리M

4월1~7일 개인전

과감한 채색과 화면 구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젊은 작가 김형진씨가 오는 4월1일~7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갤러리M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현대인의 기억 속 단상을 담은 신작을 발표한다. 화면 가득 아이의 얼굴을 그린 뒤 배경으로 다양한 색을 덧칠해 퇴색처럼 쌓여가는 기억과 망각을 표현했다. 순수함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안한 현실이 잘 스며있는 작품들이다.

광주 출신인 김씨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



'어떤 기억을 남길 겁니까?'

공했다. '도시 속에 살다'전, 깊은 하늘 위에 뿔뿔을 띄우다'전 등에 참여했으며, 2006 단원미술대전, 2005 현대미술대전에서 특선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식목일 광주극장 허브 씨앗 심어요

프로젝트 그룹 액트아트가 4월 5일 오후 2시부터 광주극장에서 특별한 식목일 행사를 갖는다.

'희망 정원-함께 허브 꾸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바질, 달, 파슬리 등 다양한 허브 씨앗을 함께 화분에 심는다.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농산물 씨앗을 가져와 심어도 된다.

조은애·김은아·이영일씨 등 작가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액트아트는 또 광주극장 2층에서 작가들의 영상 작품도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영암 도갑사 대웅보전 복원

550년 전 대가람 모습 되찾았다

천년 고찰 영암 도갑사 대웅보전이 550여 년 전의 옛 모습으로 복원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복원된 대웅보전은 전남도와 영암군의 예산 24억원을 지원받아 단층에서 중층양식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규모도 3칸에서 250여㎡에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늘어났다.

도갑사는 정유재란과 병자호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대부분 소실됐으며, 1977년에는 참배객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대웅보전마저 전소됐다.

다시 대웅보전은 1981년 단층으로 복원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지반 침하 현상을 보였다. 이후 2004년 문화재청과 협의 를 거쳐 복원작업에 착수했으며

복원추진위원회는 목조건재 발굴조사단에 의뢰해 기존의 대웅보전 발굴자료를 토대로 기단 및 유구 재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복원된 대웅보전은 1981년 기존의 자리보다 6~7m 가량 뒤로 옮겨진 것이며 외부 중층에 내부 봉층, 온돌방식 등으로 팔작지붕을 얹었고 홍승으로 삼존불을 조성했다. 내부에는 목조로 제

작된 후불탱화가 자리 잡아 복원의 의미를 더했다.

도갑사는 4월 11일 대웅보전 복원 불사 낙성식과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현재 도갑사에는 '해탈문'(국보 제50호)과 '마애여래좌상'국보 제144호),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9호), '문수보현보살 사자 코끼리상'(보물 제1134호) 등의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도갑사는 880년 통일신라 헌강왕 6년에 도선 대사가 백제 때의 문수사터에 다시 지었으며 한때는 966칸의 대가람으로 조선 중·후기 불교의 중심지 평가를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구.관동국사거리 ☞메메1544-0600

M관	실종 (18세)	최고급관
2관	푸시 (15세)	
3관	더리더 (18세)	
4관	슬럼독 밀리어너 (15세)	
5관	쇼퍼홀릭 (12세/디지탈)	
6관	그랜토리노(12세)/13일의금요일(18세)	
7관	기프트 (15세)	
8관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 (15세)	
9관	카오스 (15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과제 포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엔터시네마

출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구세주2 (15세)
2관	언데드 (15세)
3관	왓치맨 (18세)
4관	작전 (18세)
5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세)
6관	숫버스 (18세)/핸드폰 (18세)
7관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한 좌석의 주차장 300대 • 9시 30분 심야상영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원과 이마트 시어) 해남점 (무영회관앞면)

1관	기프트 (15세)
2관	워낭소리 (전세)
3관	실종 (18세)
4관	더리더 (18세)
5관	슬럼독 밀리어너 (15세)
6관	쇼퍼홀릭 (12세)
7관	카오스 (15세)
8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세)
9관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 (15세)
10관	푸시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841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8시 30분 심야 상영
• 이틀 상영시 & OK 캐쉬미 키드 할인 혜택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더리더 (18세)
2관	슬럼독 밀리어너 (15세)
3관	기프트 (15세)
4관	번 에프터 리딩 (18세)
5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세)
6관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 (15세)
7관	실종 (18세)
8관	푸시 (15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하미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텍스 ☞ 267-7777

1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 (15세)
2관	푸시 (15세)
3관	작전 (18세)
4관	워낭소리 (전세)
5관	푸시 (15세)
6관	과속스캔들 (12세)
7관	카오스 (15세)
8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세)
9관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 (15세)
10관	실종 (18세)

• 하이 수영장 280-5757 • 하이 볼링장 282-0825
• 하이 골프장 251-5080 • 하이 당구장

제일시네마

출장로 37가 ARS 전화예약 227-1860

1관	더리더 (18세)
2관	슬럼독 밀리어너 (15세)
3관	13일의 금요일 (18세)
4관	실종 (18세)
5관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 (15세)
6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세)

www.jeilsinema.com/www.jeilsinema.co.kr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시외버스 환승객(주차비)만,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약 문의 227-1960